

제11대 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전국비구니회 12일 총회서 선출... 923표 얻어 '압도적 지지'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에 육문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0월 12일 오후 1시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 선출 안건을 다뤘다. 이번 전국비구니회 회장 후보로는 기호 1번 자민 스님, 기호 2번 육문 스님이 등록 접수해 선거로 진행됐다.

이날 선거에는 총 1193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했고, 이중 9명이 기권해 1184명이 투표에 응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육문 스님이 923표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에 당선됐다. 상대 후보였던 기호 1번 자민 스님은 245표를 받았다. 무효는 8표가 나왔다.

육문 스님은 당선 직후 소감 발표를 통해 "그름이라 사찰에서는 기도들이 많아 바쁜 와중에도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해주셨다"면서 "무거운 소임을 맡겨주셔서 부담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문 스님의 당선으로 전국비구니회를 둘러싸고 이뤄졌던 1년여 간의 내홍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육문 스님은 변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육문 스님이 제시한 공약은 △일하는 비구니회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권의 향상 △비구니 스님의 노후복지 증진 △비구니승



자민 스님은 245표 받아 기권 9명, 무효 8표 나와

'일하는 비구니회' 공약
회칙 개정 등 변화 예상
"공약 성실 이행" 약속

가 인재 육성에 기여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로 승가 화합 등의 5대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구니회의 회칙 개정이다. 이에 대해 육문 스님 선거대책본부는 "임의적이고 애매한 회칙 조항을 명쾌하게 개정해 운영위원 구성이나 총회위원 선출과 자격요건 등 조직 구성과 운

영 전반에 합리성을 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 조직 개편을 비롯해 대중 여론을 반영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구니회 재정 증대, 비구니회관 효율적 활용 방안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임의단체 지위 탈피 △비구니 선거권 · 피선거권 제한 법령 개정 △비구니 원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육문 스님은 이 같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전국비구니회 발전에 초석을 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0월 12일 전국비구니회 총회에서 육문 스님은 정견 발표를 통해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이미 내놓은 공약을 통해 이루도록 하겠다.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면서 "공심과 신심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일하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의 순서를 정하고 모든 일들을 소통하고 투명한 전국비구니회로 만들겠다"면서 "변화를 이끌어 화합의 승가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문 스님 측은 11월 중순경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임기를 시작하며, 취임법회도 인수인계 작업이 마쳐지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신임 회장에 바란다 31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선불교도연맹은 10월 15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에서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남북 불교 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과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강수린)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남북 불교의 수장이 만나는 것은 8년만의 일이다.

南北불교 수장 8년 만에 금강산서 만나다

조계종 민족본 · 조불련, 15일 신계사 낙성 8주년 법회

8.25남북공동선언 이후 민간교류의 첫 신호탄을 남북 불교계가 알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족본)와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지성)은 10월 15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에서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남측 65명과 북측 40명 총 105명이 참석했다. 이는 2007년 신계사복원 준공식에 3백여 명이 참석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그간 중단됐던 민간교류가 다시 활로를 찾은 만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강수린)이 공동 참석했다. 남북 불교계 수장들이 공동 참석한 것은 8년 만의 일이다. 지성 스님은 법회 전 날인 14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서 물러나며 합동법회 참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 바 있다.

민족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과 조불련 중앙위원회 부장 혜안 스님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합동법회는 대웅전 앞마당서 봉행됐다.

자승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함께 신계사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매우 안타깝다. 이제 남북합동법회를 계기로 금강산 길이 다시 열리고, 공

존과 상생으로 나아가길 발원한다"며 "불교의 성지이자 통일의 상징인 금강산을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은 "남북이 착공 첫 삽을 함께 뜨고, 완공식 때도 함께 문을 열었던 신계사는 남북 화해와 화합의 상징"이라며

8.25선언 후 첫 민간교류 행사 불자들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자승 스님 · 지성 스님 첫 만남 "할 수 있는 일은 다해보자"

오찬 가지며 협력 의지 다져
민간교류 활성화 '신호탄' 전망

"8·25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남북관계지만, 오늘의 인연공덕으로 신계사에 불법이 넘쳐 통일도량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남측 대표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과 북측대표 리현숙 조불련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 부회장이 남북공동발원문을 봉독했다. 남북은 "남북 전체 불교도들은 남북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자승 · 법등으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법회에서 남북 불자들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로 삼아 이 땅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몽땅 정진 하겠다"며 "금강산 관광길을 앞장서 열고 신계사 순례로도 반드시 이어놓겠다"고 발원했다.

법회 후 점심공양에 이어 남북 스님들은 함께 금강산 구룡연 산행에 올랐다. 남측 자승 스님, 지홍 스님과 북측 지성 스님을 비롯한 11명의 남북 불교도 관계자들은 산행 이전의 점심 식사 자리서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 스님은 "공양을 하는 동안에도 남북불교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다"며 "정세에 따라 불교계 교류가 다시 끊길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양측 모두 같았다. 11월 묘향산 보현사 추계재향도 실무 관계자들과 논의 후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 개발이 재개되면 108산사순례를 금강산 및 개성 등 북측서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내후년 10주년 법회 때는 1천여 명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남북불교계가 합심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신계사 법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8.25 선언 이후에도 남북 간 마찰이 이어져 민간교류의 전망이 좋지 않았으나 불교계가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금강산 방문단에 합류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8·25공동선언 후에도 민간교류 전망이 밝지만은 않았는데 불교계가 첫 출발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며 "북측 민간사회단체들이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불교계를 시작으로 당분간 민간교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강산 신계사=박익을 기자

대중사 특별전형 대상자 혜성 스님

법계위 14일 회에서 확정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이 대중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로 확정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34차 회의를 열고 대중사 법계 특별전형을 접수한 혜성 스님을 품수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날 법계위원회는 혜성 스님이 중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대중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로 결의했다. 혜성 스님은 중앙총회의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치면 중정 진계 스님으로부터 대중사 법계를 품수 받는다. 신성민 기자

사고 기사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경력기자 수습기자	각 0명	① 경력기자 2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경력제외)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15년 10월 23일(금)까지
2. 접수방법: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경력 기자는 자신의 기명 기사 추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 당일 제출
4.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2004-8204)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인등·영구위패 시공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15호 국6절 13매 (305x308mm)
29호 12절 13매 (257x263mm)

보련기획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